

2009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언어 영역

정답

1	3	2	4	3	2	4	3	5	2
6	2	7	5	8	2	9	5	10	5
11	1	12	3	13	1	14	2	15	1
16	1	17	3	18	3	19	4	20	3
21	4	22	5	23	5	24	3	25	2
26	4	27	4	28	1	29	5	30	5
31	1	32	3	33	4	34	4	35	4
36	2	37	2	38	1	39	3	40	4
41	3	42	1	43	5	44	5	45	4
46	5	47	4	48	1	49	2	50	2

듣기대본 및 해설

1. [출제의도] 교훈 파악하기

이제 이야기 한 편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 '0'이라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0'은 외롭고 초라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0'은 자기와 함께 있어 줄 친구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 만난 것이 '1'이란 숫자였는데, '1'은 초라한 '0'을 상대해 주지 않고 자기보다 더 큰 숫자를 찾아 떠나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0'은 2, 3, 4..... 많은 숫자를 만나보았지만 그들은 모두 작고 초라한 '0'의 친구가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0'은 좌절감에 빠지고 맙니다. 초라한 자신의 모습에 환멸을 느끼고 자신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때 숫자 '1'이 역시 초라한 불굴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1'도 '0'과 마찬가지로 친구를 찾아 헤맸지만 거만한 숫자들에게 거절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1'과 '0'은 친구가 되어 힘을 합치기로 하고 '10'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지금까지 저 '0'과 '1'을 무시했던 다른 숫자들이 모여들어 친구가 되자고 간청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혼자일 때에는 힘이 없지만, 여럿이 힘을 합하면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2.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이번에는 강연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단것을 좋아하고 쓴 것을 싫어합니다. 아이들은 쓴 약을 단맛 나는 시럽에 타 먹곤 하죠. 어른들 역시 쓴맛이 강한 커피에 대개 설탕을 넣어 마시곤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단맛을 좋아하고 쓴맛을 싫어하게 됐을까요? 이 질문에 생물학자들은 인간의 몸이 달고 기름진 것을 좋아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우리는 음식을 위와 장에서 소화하여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그 중 포도당은 열이나 에너지를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데, 특히 생명의 주추인 뇌가 사용하는 포도당은 몸 전체에서 쓰이는 양의 1/4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몸은 필수 에너지원인 포도당, 즉 단것을 좋아하도록 진화한 것입니다. 아직 맛을 잘 모르는 갓난아기조차 단맛 나는 분유를 잘 먹는 것은 이 때문이죠.

포도당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인 다음, 한때 모아져 지방의 형태로 저장됩니다. 급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먹을거리를 구할 수 없을 때, 인체는 지방을 분해하여 임시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전자가 지방을 에너지 저장원

으로 택한 이유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쓴맛을 꺼려하는 까닭은 무엇 일까요? 식물은 초식 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일종의 독소를 분비하는데, 이 독소의 맛이 바로 쓴맛입니다. 쓴맛이 나면 초식 동물은 그 식물이 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 더 이상 뜯어먹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역시 그렇습니다. 구역질이, 썩은 음식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듯, 쓴맛을 거부하는 미각 시스템은 독성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은 맥주의 태아를 보호해야 하므로 남성보다 미각이 더 발달해 있으며, 특히 쓴맛에 더 민감하다고 합니다. 여성이 임신할 수 있는 시기에 접어들면 쓴맛을 더 잘 느끼게 되고, 임신 중에 맛에 대한 민감도가 훨씬 높아지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라고 합니다.

여성의 미각이 더 발달한 이유는 체내에 지방이 많이 저장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태아에 대한 보호 본능 때문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3. [출제의도] 방송을 듣고 인물 평가하기

이번에는 라디오 다큐멘터리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음악) (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다큐 '인물과 사건'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산악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박영석 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악 그랜드슬램은 지구의 3극점, 히말라야 14좌 완등, 7대륙 최고봉 완등을 모두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박영석 씨는 2005년 5월 1일 북극점을 밟는 데 성공함으로써 산악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습니다. 히말라야 14좌 최초의 완등자인 라이홀트 메스너도 3번이나 도전했다가 북극점 실패로 포기한 산악 그랜드슬램을, 한국인이 인류 최초로 해 낸 것입니다.

1989년 히말라야 랑시샤리 제2봉을 시작으로 산악 탐험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박씨에게, 항상 성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히말라야 원정을 31번이나 떠나 14번이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포기란 없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그의 진조이기 때문입니다.

북극점을 밟고 한국에 돌아온 그는, 환영하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영석(남) : (힘 있는 목소리로) 북극에서 가장 무서웠던 것은 제 자신이었고, 가장 힘들었던 것 또한 제 자신과 씨름이었습니다.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우리는 위대하고 저력 있는 국민입니다. 힘 내십시오.

영하 50도의 혹한, 눈을 뜰 수 없이 강하게 불어대는 칼바람, 한치 앞도 파악할 수 없게 시야를 가리는 안개, 동상으로 찢어질 듯 에어오손과 발, 식량과 장비 등 100kg이 넘는 눈썰매. 상상을 초월하는 최악의 조건에서 그는 북위 90도에 태극기를 힘차게 꽂았고, 세계 탐험사를 새로 쓸 수 있었습니다.

라디오 다큐, '인물과 사건',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박영석 씨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연에 도전하여, 세계 최초로 산악 그랜드슬램을 달성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4. [출제의도] 대담 내용 확인하기

이번에는 방송 프로그램의 대담 장면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여) : 오늘은 '우리 국악, 다시 잔치 마당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칼럼을 발표하신 한국대학교 국악과 김철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김 교수(남) :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 교수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청취자를 위해 잔치 마당의 의미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김 교수 : 한마디로 관객과 연주자가 격식 없이 하나가 되어 즐기는 것입니다.

진행자 : 그럼, 잔치 마당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는 결국 국악이 흥겨워야 한다는 뜻인가요?

김 교수 : 잔치를 떠올려 보세요. 초대된 사람이거나 받은 사람이거나 격식 없이 하나가 되어 즐기잖아요. 연주회라고 하면 어렵고 딱딱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냥 편하게 음악을 즐기자는 것이지요. 또 그것이 우리 국악의 본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날의 국악 연주회는 이런 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진행자 :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 교수 : 얼마 전에 한 국악 음악회를 다녀왔습니다. 정악이 아니라, 민속악을 연주하는 무대였는데도 제가 생각하던 국악 음악회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초현대식의 건물에 1000석이 넘는 객석, 50명이 넘는 연주자로 이루어진 대형 무대였습니다. 이런 거대한 분위기에 압도당한 듯 연주자들은 너무나도 엄숙했고, 관객들도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침 소리조차 내기 어려웠습니다. 잔치 마당에서 볼 수 있는 우리 국악의 흥겨움이나 여유 같은 것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서구식 음악회에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진행자 : 그게 일반적인 추세가 아닐까요? 지금 한복보다는 양복 차림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음악회도 서구식 음악회를 따라가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요?

김 교수 : 서구식 음악회라고 하셨는데요, 서구 음악회도 처음부터 홀 중심의 큰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18세기 서구 음악회는 우리 국악의 본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저택에서 잔치끼리 모여 함께 식사를 하며, 편안하게 음악을 즐겼습니다. 말 그대로 잔치하듯 연주하고 감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더 많은 관객을 대상으로 하려다보니, 지금과 같이 규모가 커지게 되었지요.

진행자 : 18세기는 그렇다 해도, 오늘날의 서구 음악회는 대부분 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김 교수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구 음악회의 연주 형식과 개념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최근에는 한 장소에서 여러 연주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관객들은 산책을 하듯 걸어 다니며 듣고 싶은 음악을 골라 듣는, 자유로운 형식의 음악회도 생겨났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무슨 음악회인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음악회가 오히려 우리 국악 음악회와 많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국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역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진행자 : 관객들이 홀 중심의 연주회를 더 선호한다면, 연주자나 기획자들도 이에 따라야겠지요?

김 교수 : 관객들이 큰 규모로 된 국악 음악회를 원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야겠지요. 또 국악 음악회를 잔치 마당으로 하자고 해서 당장 차일 치고 명석 깔고, 술 한 잔 기울이며 음악을 듣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객과 연주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호흡들을 찾게 해 주자는 것입니다. 무대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관객과 연주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마당이라면, 그런 것이 바로 잔치 마당이지요.

진행자 :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음악 한국 듣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객과 연주자가 격식 없는'이라는 말에서 잔치마당의 의미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말한 부분에서 현재 국악 음악회의 분위기를, 관객과 연주자가 하나가 되지는 부분에서 자신이 바라는 국악 음악회의 모습을, 본래 국악의 모습을 잃었다는 데에서 잔치 마당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국악 음악회의 기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5.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진행자는 의문나는 점들에 대해 질문을 던져, 좀 더 심화된 설명을 이끌어내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 쓰 기 ****

6. [출제의도] 그림 자료를 보고 연상하기

한 여행자가 배낭을 메고 산의 정상에 향해 오르는 모습에서 학습에 관한 것을 연상해야 한다. 산의 정상은 학습목표이며, 벤치는 휴식, 지도는 학습목표에 대한 안내, 배낭은 필요한 학습 자료로 각각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7. [출제의도] 주어진 자료 해석하기

(가)의 자료를 보면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그보다는 현실성 있는 교통 체계 개선 및 교통 법규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8. [출제의도] 개요 수정하기

‘일류만을 지향하는 사회 분위기’는 ‘기업의 측면’이나 ‘청소년의 측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삭제해야 한다. 따라서 답은 ②번이다.

9.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적절성 판단하기

‘진찰’은 ‘병의 증상을 살핌’이라는 의미로 문맥의 의미를 고려할 때, ‘병 상태를 판단하는 일’이라는 뜻의 ‘진단’이 문맥상 더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10. [출제의도] 조건에 맞는 글쓰기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게 되는 이유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는 것이 조건이다. 디지털 기기들이 인간의 활동을 대신하게 된 환경이 이유이고, 적은 양의 메모를 손으로 직접 하는 것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11. [출제의도] 동사·형용사 구분하기

‘단추를 달다’는 ‘달려 한다/달아라/달자/달고 있다’처럼 의도형, 명령형, 청유형, 진행형 등이 결합 가능하지만, ‘맛이 달다’는 ‘달려 한다/달아라/달자/달고 있다’처럼 결합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12. [출제의도] 맞춤법에 맞는 어휘 찾기

③은 ‘추스리고’가 아니라, ‘추스르고’라고 해야 맞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 윤문복합 ****

□ 출전 : (가) 월명사, ‘제망매가(祭亡妹歌)’
(나) 송수권, ‘산문에 기대어’
(다) 김춘수, ‘이중섭 4’

13.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는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과 제화에 대한 믿음, (나)는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과 한이 만남에 대한 소망으로 승화되길 바라는 마음, (다)는 헤어진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14. [출제의도] 시어가 지닌 함축적 의미 파악하기

(가)의 ‘있’은 죽은 누이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나)의 ‘눈썹’은 가을산에 비친 기러기의 그림자를 형상화한 것으로, 화자는 이 그림자인 ‘눈썹’을 보고 누이를 떠올리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15. [출제의도] 종합적 감상의 적절성 판단하기

ㄷ의 ‘한 잔은 비워 두고’라는 표현은 부활한 누이를 기다리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며, ㄹ의 ‘강물’과 ‘못물’은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공간이다. 그런데 ㄷ과 ㄹ은 이러한 부활에 대한 소망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16. [출제의도] 시구의 함축적 의미 파악하기

[A]에서는 극락에서 재회할 날을 위해 종교에

정진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B]에서는 죽은 누이를 ‘못물’에 비친 ‘눈썹’을 통해 재회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는 이승과 저승에 대해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17. [출제의도] 그림과 연관 지어 작품 감상하기

작품 속에서 ‘까마귀’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내면적 아픔을 형상화한 소재이지, 전쟁으로 인한 시대적 아픔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18. [출제의도] 시구의 함축적 의미 파악하기

㉠에는 ‘눌러 죽이는’ 행위를 통해 슬픔을 이겨내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 ㉡에는 ‘아내’를 만나고 싶은 화자의 간절함이 ‘멀리멀리’ 날아서 ‘아내 머리 위에 떨어지길’ 염원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 사회 ****

□ 출전 : 김대환, <경제학 블로그>

19. [출제의도] 글의 설명 방식 파악하기

가격차별의 개념을 실생활의 사례를 들어 서술하고 있으나 문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20.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제시된 표를 보면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휴일 5회, 6회, 심야 상영의 요금은 같으나 5회, 6회와 달리 심야에는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으므로 가격차별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21. [출제의도] 핵심 정보 파악하기

글쓴이는 포인트 카드가 실질적으로 할인의 의미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즉, 대다수가 포인트 카드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격 할인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포인트 카드 제도는 소비자를 단골손님으로 유도하는 하나의 장치일 뿐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22. [출제의도] 바꾸어 쓸 수 있는 어휘 찾기

‘늘리다’는 ‘본디보다 더 길게 하다’이고 ‘늘리다’는 ‘본디보다 더 크게 하거나 많게 하다’이다. 이 부분은 이익이 커지는 것이므로 ‘늘리다’가 아니라 ‘늘리다’가 보다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창출하다’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거나 지어내다’의 의미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 언어 ****

□ 출전 : 홍성호, <진짜 경쟁력은 국어 실력이다>

23.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이 글에 의하면, ㄷ의 경우 ‘-시키다’ 대신에 ‘-하다’로 바꾸어 쓸 수 없다. ‘접수’란 단어는 지원자를 주제로 해서는 쓸 수 없으므로 ‘-하다’로도 바꾸어 쓸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24. [출제의도] 두 단어의 관계 파악하기

‘되다’는 ‘-하다’가 붙을 수 있는 명사에 붙어, 그것이 자동사가 되게 한다. 그런데, ‘부족하다’는 형용사로서, ‘되다’가 붙을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25. [출제의도] 문맥에 맞는 어휘 찾기

‘원서를 대학에 내다’의 의미이므로 ‘제출하다’가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 현대소설 ****

□ 출전 : 이청준, ‘날개의 집’

26.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서술자가 주인공 ‘세민’의 시각에서 주변 세계를 인식하고, 그의 내면을 교백하는 방법으로 서술하

고 있다. 이로써 독자들을 세민의 내면에 공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27. [출제의도] 작품의 주제 파악하기

이 작품은 주인공 ‘세민’이 삶의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그 고통을 내면화한 후 그것을 예술로 승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28. [출제의도] 주어진 단계에 따라 작품 이해하기

세민은 ‘스승과의 만남’이라는 단계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스승과 헤어져 농사일을 하면서 스승의 가르침을 깨닫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29. [출제의도]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을 문맥에 따라 살펴보면 이전 그림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전에 비해 자신의 소망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 인문 ****

□ 출전 : 로저 트리거, <인간 본성에 관한 10가지 철학적 성찰>

30. [출제의도] 글의 개괄적 내용 파악하기

①은 2문단에, ②는 3문단에, ③은 2문단에, ④는 2문단에 각각 제시돼 있다. 그러나 흠은 ‘사회적 공감’이라는 견해를 제시했지만, 그것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31. [출제의도]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과 ㉡은 인간이 이기적인 생각을 하거나(㉠), 이타적인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이 이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3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흠은 타인의 불행을 함께 느끼는 공감을 이성의 명령이 아닌 감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 회곡 ****

□ 출전 : 윤대성, ‘출세기’

33. [출제의도] 종합적 감상의 적절성 판단하기

26장면에서 ‘김창호’는 자신이 몰락한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메스컴의 주목을 받았던 출세당시를 그리워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34. [출제의도] 대사의 기능 파악하기

이 대사를 한 ‘홍 기자’는 말로는 메스컴을 경계하면서도 실질적인 행동은 그에 반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허위성을 지닌 인물이 오히려 메스컴의 이중성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35. [출제의도] 무대 형상화 방식의 적절성 판단하기

㉢에서 ‘홍 기자’는 배관공의 죽음에 안타까워하기보다는 보도할 가치가 없어지자 급하게 방송을 끝내려고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 예술 ****

□ 출전 : 이영옥, <사진보기와 사진읽기>

36. [출제의도] 핵심 정보 파악하기

현실의 외형을 그대로 복제하는 사진의 재현 방식을 현대 미술이 모방하게 되면서 전통적인 재현 방식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이 글의 핵심 내용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37. [출제의도] 접속어에 유의하면서 글의 흐름 파악하기

‘한편으로’는 앞의 내용과는 다른 새로운 생각이나 사실을 서술하여 화제를 이어주는 기능을 한다. ‘협소하게 제한된 사진의 속성’이 아니라 ‘사진

의 또 다른 측면'이 제시되어야 맞는 설명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38.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보기>의 그림은 복제물인 사진을 거듭해서 복제하는 방식으로 제작된 것이다. 사진 이미지는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현실 그 자체는 아니라 현실의 외형을 복제한 이미지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39. [출제의도] 핵심 내용 파악하기

'플라톤'은 세계의 원형은 '이데아'이며, 복제를 거듭할수록 '이데아'에서 멀어진다고 보았다. 이는 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 기술 ****

□ 출전 : 신동원, <우리 과학의 수수께끼2>

40. [출제의도] 글의 개괄적인 내용 파악하기

①은 1문단, ②는 3문단, ③과 ⑤는 2문단에 제시돼 있다. ④는 제시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서울 지역의 강우 기록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강우량 자료임은 알 수 있으나, 최초 우량 측정 방법이 세종 때 수립된 것임을 본문을 통해 알 수는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41.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세종은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측우기를 제작하여 보고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제작된 측우기를 가지고 각 지방의 측정 결과를 보고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42.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의 적절성 판단하기

풍향계는 바람의 방향을 수치가 아닌 동서남북의 방위로 나타낸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 고전소설 ****

□ 출전 : 김시습, '남염부주지(南炎浮洲志)'

43.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리하기

'염왕'은 그가 쓴 글에서, '박생'은 정직하고 청렴하며 과단성이 있어서 백성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44. [출제의도] 관점에 따른 해석의 적절성 파악하기

㉔는 '염왕'이 자신의 생각이 인간 세상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박생'이 힘써 달라고 말한 것이다. 이를 결의와 공명심 사이에서 번민하는 작가의 모습으로 이해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45. [출제의도] 소설적 장치의 기능 파악하기

<보기>에서 꿈은 결의와 공명심 사이에서 갈등하던 작가의 소설적 장치임을 밝히고 있다. 현실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박생'은 '염왕'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고 왕위를 물려받게 된다. 이를 통해 볼 때,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정치적 이상을 꿈을 통해 실현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46. [출제의도] 다른 작품과 비교·감상하기

[A]는 위정자가 도덕과 예법에 따라 치국해야 함을, <보기>는 임금, 백성, 신하가 각자의 본분을 잘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 과학 ****

□ 출전 : 파브르, <파브르 식물기>

47. [출제의도] 글의 서술 전략 파악하기

구체적인 사례로 벚나무를 제시하였고, 그림을 동원하여 서술하였고, 식물을 인간에 비유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의 견해는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48. [출제의도] 문맥의 의미 파악하기

식물이 나선형 계단을 이루면서 서로 겹치지 않게 잎이 나는 것은 빛을 흡수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식물마다 개도는 다른데, 개도를 이루는 한 요소가 사이클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49.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나무를 살펴보면 잎1 위에 잎4가 놓여 있다. 따라서 사이클은 3이다. 이 사이클을 이루기 위해 한 바퀴 돌고 있으므로 개도는 '1/3'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50. [출제의도] 맞춤법에 맞는 단어 찾기

원소리나 거센소리 앞에 결합하는 '위-'에는 사잇소리를 붙이지 않는다. 또 '르' 받침으로 끝나는 용언의 명사형은 '렌'으로 쓴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